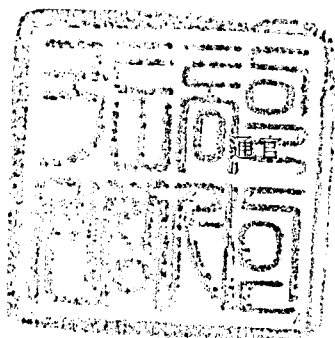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하여 翻譯한 歷史的
記錄文獻으로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査研究—社會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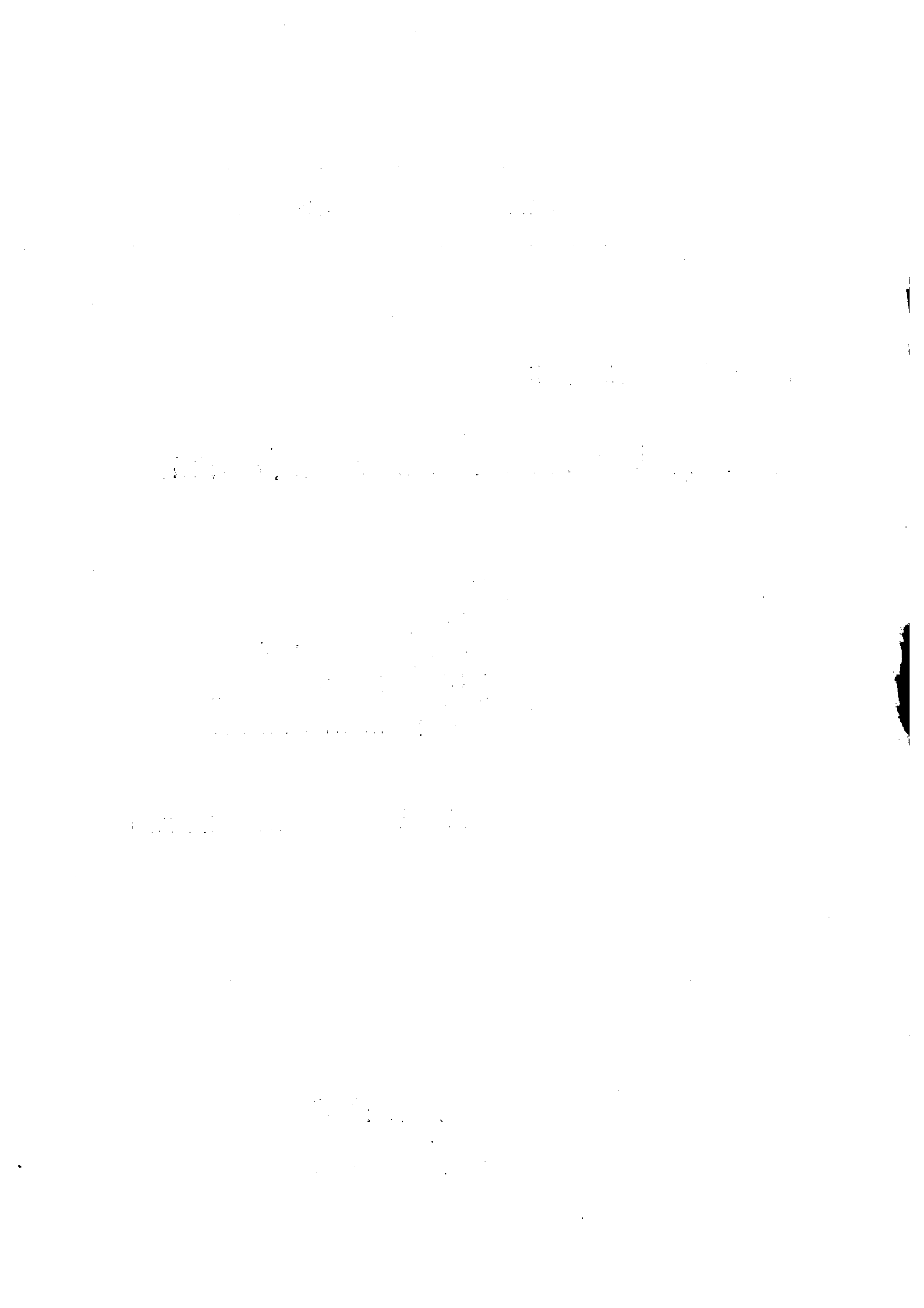
白頭山 定界碑 建立 實況記



金 應 門 記
文 定 昌 譯
(韓國古代史學會 會長)

刊行責任 崔 炳 輔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白頭山 定界碑 建立 実況記

白頭山은 北方 모든 山의 祖宗이다. 清太組가 여기서 興起하였으며, 우리의 北쪽 境界로 부터 三〇〇餘里 떨어져 있다. 中國은 長白山이라 하고, 우리는 白頭山이라 부른다. 두나라가 白頭山 마루에서 흘러내리는 두줄기의 江으로써 境界하고 있다. 그러나 地勢가 워낙 넓고, 크고, 멀리 떨어져 있어 상세하게 알 수 없다.

壬辰 (一五九二) 年 三月 清나라 임금이 우랄 (烏喇) 총관 穆克登 (목극등) 과 서위 布蘇倫, 주사 鄂世 (악세) 를 白頭山에 보내어 兩國의 境界를 確定하려 한다.

우리 朝廷이 자못 疑懼하였다. 즉 四郡이 廢止되고 다시는 우리 땅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다. 1)

또한 후자는 六鎮이 念慮된다 하였다. 2)

判中樞 李謀 말해가로되 『마땅히 白頭山 꼭대기에 있는 못 (池) 을 반씩 나누어 그 中間線을 基準으로 境界를 定해야 한다.』 하였다. 接伴使 朴公權·咸鏡道 巡察使 李善溥을 보내어 함께 가

註 1 : 四郡은 咸鏡北道 東北端에 位置한 慶興·慶源·穩城·鍾城, 四郡이 廢止되고 다시는 우리 땅이 되지 않을까 의구한다 한것은, 七〇年前 三渡田의 降服以來 清의 勢力이 巴야흐로 韓半島에 펼쳐고 있었음에이다.

註 2 : 六鎮은 世宗十五年 (一四三三) 設置한 慶源·慶興·富寧·鍾城·穩城·會寧을 말한것. 南方各地의 백성들을 이곳에 移住시켜 北方에 對備했다.

살펴 처리하라 하였다. 金慶門이 통역을 잘 하므로 딸려 보냈다. 이미 山에 올라 경계를 定하고 돌아와 慶門이 나에게 그 事實을 다음과 같이 伝하더라.

四月二十九日. 慶門이 馱馬를 타고 서울을 出發, 一〇〇〇餘里의 邊境에 到達하여 三水郡 運困에서 穆克登과 만났다. 따라온 淸國人이 數一〇〇名. 낙타와 말이 二〇〇여필이요. 소가 二〇여두다. 接伴使 朴公權의 심부름꾼이 그 勞役을 도우고, 또한 쌀과 고기를 보냈더니 받지 아니하고 말해 가로되 『우라 皇帝께서 朝鮮國에 冊을 끼칠까 念慮하여 克登에게 下腸하신 物資와 糧穀이 심히 많다. 우리가 갖고온 物資로서도 넉넉하니 念慮말라.』하였다. 이보다 먼저 登克이 北京에 있을때에 우리나라 使臣에게 일러가로되 『白頭山을 올라 갈때에 南쪽길을 扞하고저 하오니 너의 쪽에서 알아 보라.』하였다. 克登이 길을 물으매 慶門이 답해 가로되 『그 길은 憲山을 거쳐야 합니다. 공의 이번 걸음은 기필코 境界線을 밝혀내어 確定하려 함에 있는줄 아나이다. 白頭山 마루에 큰못이 있는데 그 못물이 東쪽으로 흘러내려서는 土門江이 되고 西쪽으로 흘러서는 鴨綠江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南쪽과 北쪽의 境界입니다. 3)

註 3 : 南은 朝鮮, 北은 淸國을 뜻한것.

惠山으로 부터 물줄기를 타고 거슬러 그 源에 到達하게 되는데, 그 사이의 山路와 水路가 심히 險하고 가로막혀 있어서 옛적부터 通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냥꾼이 올라가려고 나무를 더워 잡고 원숭이, 처럼 기어오르나, 아직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본자 없 다 합니다. 공이 어찌하여 그와 같은 險難한 길을 밟으려 합니 까.』하였다.

克登이 가로되 『나, 皇帝의 命을 받고 왔는데 어찌 그 險難을 두려워 하리오. 너는 너의나라 境界線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어찌 그것만으로 우리 皇帝께 奏上 하여 境界를 定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말이 너의 나라 史籍에 실려 있느냐.』하였다.

慶門이 답해 가로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 国土의 境界線임을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뚜렷한 事實을 어찌 새삼 皇帝께 奏上하며, 文字로써 云謂한다 말입니까?

지난해 皇帝께서 暢春苑에 계실때에, 우리나라 使臣을 불러 西北의 境界를 물으시매, 우리使者가 그와 같이 답했습니다. 貴公도 응당 들었을 것입니다.

鴨綠·土門 兩江이 그 源을 이 못에서 發하여 天下의 大水가 되어 있으나 이는 하늘이 南北의 境界를 定한것입니다. 공이 한번 보시면 알것입니다.』

五月一日. 旧茄鎮에 到達하여 王의 親書를 伝達하다.

五月三日. 아침 일찍 出發하여 長嶺에 오르다. 北녘을 바라보니, 白頭山이 하늘 끝에 길게 뻗어 있다. 높고 크고 먼 蒼空. 흰소(白牛) 한마리가 草原에 누워 있는것 같다. 克登이 望遠鏡으로써 바라다 보고 『三〇〇리쯤 되겠구나.』했다.

五月四日. 虛川江을 건너 惠山鎮에 到達하다.

五月五日. 接伴使 朴公權과 함경도 순찰사 李善溥 두 어른이 들어가 克登을 보다. 다시 사람을 보내여 『우리 임금께서 드리는 선사입니다.』하고 金五百兩을 주었더니 대단히 기뻐하면서 사양하다가 받고 『황제께서 굽어 이나라를 念慮하시므로 우리가 여기에와 境界를 定하여 변방사람들이 領內에 侵犯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하였다.

地方사람 愛順이 일찍 山蔘採取차 白頭山에 登攀한 일이 있어 南路를 잘 안다는 것이다. 克登이 愛順을 불러다 물어 가로되. 白頭山에 올라가는 길을 네가 잘 알고 있다지. 나 지금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숨김없이 말하라.

愛順이 모른다 했다.

克登이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저놈을 앞세우면 길을 알게 될것이다.』하였다.

五月六日. 克登은 筆生 蘇二昌, 통역 二哥, 그의 家奴二〇人, 낙타, 소, 말 四〇~五〇匹, 人夫四三人을 거느렸고, 우리側은 接伴사 朴公權

그가 데리고 온 軍官 李羲復·巡察使 李公善, 그의 軍官 趙台相·
居山찰방 許樑·羅暖만호 朴道常·통역관 金丕憲·金慶門 및 案内
者三人·斧手一〇人·말四〇匹·人夫四七人이 同伴하게 되었다.

克登과 함께 온, 蘇倫과 鄂世는 여타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虛項嶺
을 거쳐 그 本國으로 돌아갔다. 4)

五月七日, 朝飯을 췌하고 모두 털모자를 쓰고, 좁은 소매 옷을
입고, 올라 화(靴)를 신으니, 무릎까지 닿는다.
서로 보고 웃었다.

掛弓亭으로 부터 江가에 내려가, 거슬러 五時까지 올라갔다.
五時川은 鏡城郡 長白山에서 源을 발하여 이곳에 이르러 鴨綠江水
와 合流한다.

내갈박은 모두 거친 들 자갈로 人家가 없다.

北으로 鴨綠江을 건너 行進하며, 石壁이 鉄을 깎아 세운듯 行進
할 수가 없다.

柏德에서 세길을 만들어 가장 높은 山언덕으로 걸어가다.

언덕이 비스듬히 잇달아 높아 가다가 그위가 平坦해진곳을, 北方
에서는 「德」이라 하는데 柏德이 곧 白頭山 기슭이다.

註4 : 돌아간 淸國人 數一〇〇名은 勅使 穆克登의 警護員이었고,
이제부터 穆克登의 警護에 관한 責任은 朝鮮朝에 있는 것
이다.

잣 (柏) 나무가 많으며 길이 몹시 가파르고 급하다.

이미 등성마루 약간 平坦한곳에 올랐는데 地勢는 한걸음 한걸음 더 높아 간다.

무성하고 깊은 樹林속을 뚫고 들어가니 큰나무 뿌리들이 大地에 구비구비 엉켜져 있다.

처음 내리는 비 (雨) 에 길이 축축히 젖어 가기가 어렵다.

70 里를 걸어 劍川에서 자다.

五月八日. 劍川을 건너 二五里를 걸어 昆長隅에 到達하다.

처음 出發할때에 朴·李 두어른이 白頭山꼭대기 까지 올라 가겠다 하니 穆克登이 『내가 보건데 朝鮮의 제상들은 움직이면 반드시 가마를 타는데, 더욱이 年老하신 貴下가 그토록 險한곳에 갈 수 있겠는가. 中途에서 넘어지면 大事를 그르칠 것이다』하고 許하지 아니했다.

두어른이 이곳까지 왔으며 克登과 作別하고 또한 우리 六人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리를 위로했다.

一五里쯤 가니 큰내 (川) 가 있다.

西쪽으로 건느매 물은 얕으나 흐름이 달리는 말과 같다.

五月九日. 愛順에게 시켜 10 名의 斧手들과 함께 길을 가로 막고 있는 나무를 베게하다.

江의 낭떨어지가 급하여 五里程度 길이 끊겼으므로 다시 平平한 山언덕으로 올라가 길을 걸었다.

樺皮德, 視柏德이라고 불리우는 이언덕은 더욱 높고 險하며 그
꼭대기가 크고 넓은데 타다 남은 燈불심지가 버려져 있다.

二哥 마름 (菱) 을 가르키며 愛順에게 일러 가로되 「너 길을
안다더니 이곳에서 자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愛順이 잠자코 回答하지 아니했다.⁵⁾

80 餘里를 걸으니, 조그마한 못 (池) 이 있었다. 사람이 쉬고,
말이 물을 마셨다.

穆克登이 소 (牛) 한마리를 둘로 나누어, 半은 우리에게 주고, 半
은 자기네가 차지했다.

해가 넘어가려 할 때 하늘이 음산해지고 鳥성이 진동하더니 소
낙비가 쏟아졌다.

清人들은 모두 휘장 하나씩을 갖어 썼으니 그들은 비를 맞지
아니하고, 우리편 여섯사람은, 오직 삼베 (麻布) 로써만든 휘장 하나
와 손바닥만한 油紙한장이 있을 뿐, 그 휘장과 油紙속에 개마와
같이 모여들어 비를 피한다.

註 5 : 마름은 땅에 뿌리를 박고 줄기가 길게 뻗어 물위에 잎 (葉)
이 뜨고, 꽃이피여 열매가 달리는 것이니, 樺皮德, 視柏德 두
언덕에 小規模의 늪 (沼) 지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온 五八人은, 앉아서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다.
밤이 깊어질 무렵 비가 그쳐 겨우 죽음을免하게 되었다.

五月一〇日. 東으로 江을 건너 우리편 강언덕을 따라 數里를 가
다가, 다시 淸國側 江가를 三〇餘里 걸었다.

. 이 三〇里사이에서 아홉번 江을 건넜는데 平坦한 곳이라곤 두어
步 (步는 一. 七〇m) 뿐. 나머지는 모두가 폭포수와 여울이다.

視柏德으로 부터 一四〇餘里를 올라왔다.

巨木이 山에 가득차 있어, 공중에 높이 솟아 해를 가리운다. 그 큰
것은 둘레가 三〇餘尺이며, 뻗뻗 하기가 織人과 같다.⁶⁾

註 6 : 織人은 阿房宮賊의 「架樑之椽. 多於機上之工女」에 빗거한
것 같다.

그러나 나무가 뻗뻗이 들어선 것을, 機上의 織女에 比함은,
格에 맞지 않는 일이다.

나무와 나무사이의 틈으로부터 빈곳을 찾아 옆을 뚫고 나와, 이곳에 당도하니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평탄한南向의 곳이 아니면 햇빛을 얻어 볼 수 없다.

이따금 자빠진 나무가 가로 누워 있는데, 가지가 어금니와 같이 떨어 있어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리저리 피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렇 저렇 100 里, 또 200 里.

나무는 삼나무·전나무·잣나무·자작나무·북나무등이 많은데, 소나무는 한그루 밖에 보지 못했다.

붉고, 흰 작약(菊藥) 꽃이, 바야흐로 爛發.

나무가 있되, 키가 심히 작다. 初生잎이 새파란데, 이러한 나무들을 속칭 「두을죽(豆乙粥)」이라 한다.

(金慶門 일행은, 이에 白頭山 灌木성 地帶를 通過하고 있는 것이다.)

五時川을 지나서 부터, 나는 새(禽)를 보지 못했더니 이곳에 오니 누른새가 있다.

잣나무(柏) 기름(脂)을 쪼아 먹고 사는데, 그 울음소리가 심히 급하다.

地方사람들이 이것을 「柏鳥」라 하는데, 깊은 山에 들어서니 柏鳥 또한 울지 아니 한다.

범과 표범은 없고, 곰·돼지·사슴·노루등이 떼를 지어 놀다가 사람을 보고 놀라 뛰어 멀리 흩어져 달아난다.

담비·이리·족재비·탁쥐·쥐제비·날 다람쥐 따위는 없는 곳이 없다. 조금 나아가 비탈진 긴 언덕에 오르니, 山이 골목을 지어 急傾斜의 골짜기를 이룩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지극히 壯嚴하고 험준하다.

愛順이 가로되 『이곳은 韓德立의 支當입니다. 地方에서는, 물이 돌에 부닥쳐 솟아 올라, 사나운 소리를 내어 사자처럼 울부짖는 곳을 「支當」이라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못사슴이 이곳에 모여들어, 깨물고·쏘는 벌레의 害와 독을 피합니다.

德立이, 이 골짜기의 出入口를 独占하여 많은 사슴을 잡았으므로 <德立의 支當>이라 합니다.』하였다.

다시 비탈을 올라 八·九里. 克登이 낭떨어지 언덕위에서 말을 멈추니, 모두들 발을 멈추고 굳어져서 있다.

나(慶門), 또한 말에서 내려 내려다 보니, 絶壁이 몇 1,000 丈이나.

大地가 터지고 갈라져, 가운데 벌어져 있는데, 瀑布水가 높은 石壁에서 吐하듯 깊은 溪谷에 떨어진다. 부닥쳐 진동을 치니, 못바위봉우리가 두려워 하여 우뚝서 있다.

左·右의 溪谷에서 여울물이 모여들어 화살과 같이 달린다. 혹은 소용돌이쳐 웅덩이가 되고, 혹은 돌과 격투를 벌려 장엄하게 울린다.

百面이 우뢰요, 북소리로 참으로 天下의 奇觀이다.

다시 10數里를 가니, 나무가 성글고 山이 점차 들어난다.

이제부터 山은 뼈대뿐이요, 빛깔은 蒼白하다. 싸이고 싸인 기운이 응결하여, 하나의 큰 물방울과 같은 岩石이 된 것이다. 7)

東쪽 한 봉우리를 바라다 보니 험하고 험차게, 우뚝솟아 하늘의 받침대가 되어 있다.

愛順에게 『山이 가까우니, 오늘중에 꼭대기에 當到하겠다』라고 물어보니 愛順 『그렇게 안됩니다. 저 山은 小白山인데, 小白山을 지나 상구 西쪽으로 10餘里를 더 가야 白頭山 터전에 당도 합니다. 터전에서 꼭대기까지는 20 ~ 30餘里가 되며, 또한 조금 더 가면 東쪽 고개가 있는데 이것을 小白山의 支山이라 합니다.

높고 험한 그 등마루에 오르면, 비로소 白頭山이 보입니다.

웅장하고 厚大하고 高曠하여, 1,000里밖 하늘아래 오직 그 山마루만이 보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높은 도마(俎)위에, 白色의 독(雍互)을 거꾸로 엮어 놓은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山이름을 白頭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루턱 부터는 한주먹의 흙과 한 포기의 풀도 없습니다. 간혹 소나무와 삼나무가 있으나 強風에 시달려 외소하고 구불구불합니다.』라고 답하다.

註7 : 地質學은, 白頭山을 第三期(약 6,500萬年前) 白堊期에, 白頭岩이라 불리우는 알자갈 粗面岩의 粘土가, 豊富한 熔岩이 되어 몇번이고 반복 噴出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마루를 내려 북쪽으로 가, 짙짙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시내를 건너, 平地에 到達했다.

數里동안 나무가 있으나 역시 울퉁불퉁 혹은 나있고, 그 높이가 두어자(尺)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俗稱 「박달(朴達)」이라 한다는 것이다.

여기를 지나니 모두가 민둥산이다.

때는 저녁놀인데, 山허리에 조각 구름이 있다. 山꼭대기에 일어, 드리우듯 밑으로 내려왔다가, 벼란간 뚝뚝 말리어 올라가 퍼져 하늘에 가득찬다.

愛順이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다.』하고, 두려워 하는 빛을 보였다.

克登이 보고 『왜 그렇게 무서워 하느냐.』하니, 愛順이 答해 가로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山에서 비가오면 반드시 사람이 죽읍니다. 바람이 불면, 돌이 물거품과 같이 떠올라, 四方에서 쏟아져 내려 눈 한번 깜짝할 동안에, 비탈진 골짜기를 메꾸워 버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곳에 묻혀버리면, 살아나올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白頭山에 올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목욕 재계하고 無事함을 기도합니다.』

克登이 가로되 『나, 天子의 命을 받고 온 官員인데, 어찌 너희들 採藥師와 사냥꾼 같이 말하느냐.』하였다.

慶門이 答해 가로되, 公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기도와 제사는 尙상해 왔읍니다.

또 한사람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自己 자신은 일과 敵이 있음을 알고 行해야 한다는 것이 옛사람의 말입니다.

克登이 慶門을 돌아보고 초(燭)를 찾아, 자신 기도하려 했다.

저녁이 되니 구름이 개이고, 달이 떠올라 머리위에 있다.

홀연 귀신과 같은 괴물이 나타나 우뚝하고 털이 많은 모양으로 좀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때리려 한다. 자세히 보니 모두 '낮에 본 老木들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不覺中에 두려워 하게하는 것이다.

5月 11日. 새벽밥을 먹고 저들 셋 官員과 우리측 六官員이 제각금 두사람씩의 健脚者를 거느렸다. 또한 穆克登이 데리고 온 画工 劉元吉 및 愛順등과 함께 떠나 50 ~ 60里를 걸었다.

山이 문득 橫으로 갈라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깊이는 限이 없고 갈라진 폭은 겨우 二尺이다. 말이 겁내어 벌벌 떨면서 건너지 못한다.

馬上의 사람이 내리고 馬夫가 먼저 北으로 뛰어넘어 고삐를 잡아 당겨 말을 건느게 했다.

그리한후 克登이 먼저 뛰어 넘으니 사람들이 모두 뒤따랐다. 그러나 慶門, 蘇爾昌, 李復義는 넘지 못했다.

克登이 키큰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붙잡고 건느게 했다.

五里쯤 올라가니 또 아래와 같은 구덩이가 있는데 폭은 한자(尺) 남짓하다.

길이 더욱 險하고 急하여 타고 갈수없어 말을 멈추고 나무를

또개어 다리를 놓고 걸었다.

약간 西쪽으로 向해 내려와 鴨綠江 上流를 건너 그 北쪽 언덕에 앉았다. 克登과 더불어 疆域의 境界를 論議하다 여기서 약간 기운을 얻어 천천히 걸으니 心身이 상쾌하다. 다시 四里쯤 前進하니 길은 더욱 사납고 경사는 더한층 급하다. 다리에 힘이 없고 땀은 비오듯 흐른다.

다시 四里쯤가니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하여 드러누워 움직이지 못했다.

克登의 썩썩하고 민첩한 모양은 원숭이의 날람과 같아 따를 자 없다. 許樑이 뒤에가고 朴常道, 趙台相, 두통역관, 그리고二哥의 차례로 올라간다. 蘇倫, 李公善, 나 金慶門은 맨아래다.

모두들 허덕이는 모양이, 눈(雪)에 목까지 빠진 소(牛)가 허덕이는 것 같아 참아 볼수 없다.

앞가는 사람을 따르려고 死力을 다하나, 다리가 잡아 매어 놓은 것 같아 前進할수 없다.

馱夫가 갖고온 布帶를 허리에 걸고, 待從者 두사람이 左右에서 당기게 했다.

멀리 미치지 못하여 앞가는 사람을 우러러보니 모두들 구름갓가이는 아득한 곳에 있다.

山頂이 멀지 않으나, 아직 반밖에 못 왔다는 느낌이 든다.

조금 쉬고 또 가니 마음이 더욱 두려워진다. 五步가다 넘어지고 10步가다 쉰다.

혹은 부축하고 혹은 땅에 배(腹)를 대고 엉금엉금간다. 힘을 다해
뒤따르나 더욱 뒤떨어진다.

山頂에 도달하니 이미 한낮이다.

白頭山은 먼저 西北에서 일어서 곧 東으로 向해 오다가 이곳에
서 높이 솟은 것이다.

그 높이 하늘에 다다랐는데 몇천만 仞⁸⁾인지 알수 없다.

꼭대기에 큰못(池)이 있다. 사람의 머리위에 숨구멍이 있는것
같다.

둘레는 20 ~ 30 里인데 물빛이 검푸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여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다.

때는 초여름인데 얼음과 눈이 조금씩 쌓여있다. 바다를 보니
사방이 銀바다라. 山의 형상이 멀리 있을때에는 독을 얹어 놓은
것 같더니 올라와 보니 山머리는 周圍가 불룩하고 그 가운데가
움푹져 독이 위로 向해 있는것 같다.

밖은 희고 안은 붉으며 四面의 壁이 짙은듯이 서있어 마치 糊
丹墳과 같다.

中國인들이 『하늘을 보고 외친다』하였다. 이날낮, 맑게 개어 四
方이 내려다 보이는데 직통 數 1,000 里가 사무치게 넓고 아득하
며 편편하게 눈아래 있다.

山을 둘러싼 눈(雪)이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이어져 있어

註 8 : 仞은 周尺 7 ~ 8 尺

마치 흰솜(綿)이 흩어져 있는것 같다.

西北쪽 뭇산이 겹쳐져 이어나갔는데 모두들 頭角이 반쯤 들어나 구름과 서로 삼키고 뺏는다.

그것이 韓淸兩國 어느쪽 山인지 알수 없다. 그러나 鏡城의 長白山과 그 東西의 큰산들은 分明히 알수 없으나 가히 미루어 가르켜 인정할 수 있다.

甫·多·會·關氏등 小白山系 여러 봉우리는 모두 白頭山의 크고 작은 支脈이다.

그외의 것은 視力이 미치지 못해 分弁할수 없다. 穆克登이 가로되 『나, 大清一統志를 관할하는 者로 勅旨를 받들고 우리나라 各處를 探訪. 내발길이 天下에 두루 미쳤는데 白頭山의 험하고 위어남은 생각지도 못하리 만치 기발하다. 비록 中國의 名山에는 미치지 못하나 방박(磅礪)하고 雄大한 勢는 中國의 모든 名山보다 훨씬 낫다』하였다.

克登이 못물을 가르키면서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慶門이 답해 가로되 오래된 큰조개(蚌蛤)가 있다 합니다.

克登.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나 듣건데 明月珠는 깊은 못에서 난다 하니 여기에 반드시 있을것이다.

愛順. 하늘이 온화하고 景色이 맑은 밤에는 못에서 이상한 기운을 뿜 합니다.

그 光彩가 하늘에 펼쳐, 바다에서 달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每年 6月이 되면 얼음이 녹고, 7月에 다시 結氷합니다.

그 동안이 한달인데 地中에서 光彩가 쏘아 오르는 것은 반드시 얼음이 풀리는데 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웃으니, 愛順이 경계했다. 별안간 못에서 소리가 나더니 얼음장 밑에서 雷聲이 진동한다.

愛順은 失色하고, 克登은 못을 向하여 꿰어 앉아 묵념하면서 몇 마딘가를 중얼거렸다.

(白頭山 天池에 光彩를 發射하는 조개가 있다한 이 記錄은 귀담아 들을 일이다.

蚌은 蚌蛤의 類로 語文은 이것을 蜃類라 했다.

「拾遺記」는 陰泉에 검은 빛깔의 蚌이 있는데 날라다닌다 했다. 陰泉. 在寒山北. 有黑蚌. 飛翔來去. 또한 「本草」는 蜃은 蛟龍의 一種이라 하고 다시 蜃의 큰것은 뿔이 있어 形狀이 竜과 같고 吹氣를 吐하여 欄臺 또는 城郭과 같은 蜃氣樓를 만들어 낸다. (見康熙字典)

다음 穆克登이 말한 明月珠와 愛順이 말한 異氣는 우리의 興味를 돌꾼다.

「通雅」는 「珠는 조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珠非獨出於蚌也」하고 이어 「竜의 구슬은 喉頭(목구멍의 가장 요진한 곳)에 있고, 거북이의 구슬은 발에 있고, 거미(蛛)의 구슬은 배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조개(蚌)구슬만 못하다」. 했다.

山頂에서 내려 東쪽으로 가는데 곰(熊) 한마리가 모퉁이에서 튀어 나온다. 克登이 大喝一聲, 주먹을 휘두르면서 쫓으니, 곰이

놀라 山등성이 쪽으로 뛰어 달아났다.

慶門이 克登에게 일러 가로되 『公은, 皇帝의 側近인데, 어찌 그와 같이 가볍게 行動하느냐』. 하니 克登이 우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곧 自重이다. 불의에 猛獸가 나왔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면 猛獸가 나를 업신 여길 것이니 어찌 버려둘수 있느냐』. 하였다.

山등성의 마루를 따라 어슬렁 어슬렁 四里쯤 내려오니, 비로서 鴨綠江의 근원이 發見되었다.

물거품이 일면서 솟아오르는 샘(泉)이 있다. 즐기 차고 풍성한 물은, 山上의 못(池)물이 뚫어져 있는 구멍을 타고 흘러 내리다가 여기서 地表에 나타난 것이다.

물이 쿵쿵 소리를 내면서 화살과 같이 달리는데 불과 數 100m 地点에서 좁게 벌어져 있는 天險의 골짜기로 쏟아져 들어간다.

양손으로 움켜쥐고 갖고 마시니 물맛이 시원하며 상쾌하다.

東쪽으로 잘막한 산등성을 넘어서니 또하나의 큰 샘(泉)이 있다.

샘물은, 西쪽으로 흘러 불과 100여 m 地点에 두줄기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한 줄기는 東으로 흘러 내리는데, 이 줄기는 매우 가늘다.

다시 東으로 한 산등성을 넘어서니 거기에는 第三의 샘이 있다.

東쪽으로 흘러 불과 50m 지점에서 第二의 샘이 있는 山줄기에서 東으로 흘러오는 물과 合流한다.

克登이 第二의 샘 물이 갈라져 흐르는 中間地點에 앉아, 慶門을 보고 일러가로되 『이곳이 이름 지을 만한 分水嶺이다. 여기에 碑를 세워 境界線으로 定함이 어떠하냐』. 하였다.

慶門이 答해 가로되 『옳고 밝은 処事입니다. 公의 이번 行차의 이 처사는 마땅히 이 山과 더불어 永遠할 것입니다.

이 두 물줄기가 나누어져 사람 인(人)字가 되어 있고, 또한 갈라진 곳에 작은 바윗돌이 마치 범(虎)이 엮드려 있는것 같읍니다』.

克登이 가로되 『이 山에 이돌이 있는 것은, 심히 기묘하고 이상스러운 일이다. 可히 碑石의 받침돌을 만들만한 곳이다』. 하였다. 山을 내리니 어두워졌다. 天幕에서 밤을 새우다.

5月 12日. 克登이 말해 가로되 『土門의 源流가 斷統적으로 땅 밑에 들어갔다가 露出되어, 疆域의 境界선으로는 分明치 못하다. 碑세우는 일은 敬술히 論할수 없다』. 하고 곧 그가 데리고 온 두사람(蘇二昌, 二哥)과 愛順을 보내어 水道를 찾게 했다.

朝鮮側 金允禧와 趙台相 두사람이 뒤를 따랐다. 一行이 60餘里를 갔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 蘇昌, 二哥 두사람이 아뢰어 가로되 『그물이 과연 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했다.

克登이 드디어 사람을 시켜 碑石을 만드니 너비가 二尺이요 길이가 三尺이다.

또한 그 分水嶺에 가 碑石의 받침돌을 만들었다. 碑石이 이미 다듬어 졌으며, 다음의 글을 새겼다. 「大清」二字는 조금크게

하고. 우랄 총관 穆克登은 皇帝의 命을 받들고 辺方을 시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 踏査했다.

西는 鴨綠江이 되고 東은 土門江이된다. 그러므로 이 二水의 分水嶺에 碑石을 세워 記錄한다.

康熙五十二(一七一二)年 五月一五日.

筆貼式 蘇爾昌. 通官 二哥.

朝鮮軍官 李羲復, 趙台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瀾, 金慶門 만들고 새겨서 세우다.

이미 工事を 畢하매 山을 내려 茂山에 當到하다.

克登이 접반사 朴公權, 함경도순찰사 李善傳에게 일러 가로되 「土門의 源이 끊키는 地点에 높직하고 평평한 墩대를 싸서 그 下流와 接統시켜 境界를 분명히 들어나게 하시오. 이번 걸음의 往來가 무릇 三個月인데 그 行路가 數 1000에 達합니다」하였다. ……

나, 옛 伝記를 읽으며 崑崙산은 그 높이가 2,500 餘里인데, 黃河의 源이 거기서 發하였다.

漢나라 張蹇(건)이 그 源을 알아 내었으며, 司馬遷이 이것을 傳하고 찬양했다.

白頭山은 東北方의 崑崙山인데 아직 올라가 본자가 없다. 이제 金生(慶門)이 능히 그 꼭대기를 밟아 鴨綠·豆滿 양大江의 源을 찾아 疆域의 境界를 定하고 돌아왔으니 壯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나만은 漢武帝때와 같은 盛世를 만나지 못하여 장권과 같이 이산에 올랐으나 하나의 奴僕이 되어 우랄총관의 심부름꾼이

되었으니 이것이 개탄스럽고 恨이 된다.

나 地位는 녀넉하지 못하나 붓으로써 이것들 떨치어서 나타내는
바이다.

